

<서 문>

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‘구원의 계시’이다.

이 계시는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으며, 구약의 예표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면 신약의 실체는 ‘예수 그리스도’이다.

“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”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‘성육신’(Incarnation)의 사건에서 출발하여,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, 그 사명이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준다.

성육신의 목적은 단순한 나타나심이나 가르침에 있지 않고,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역에 있다. 이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,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‘하나님 나라의 완성’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.

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, ‘성령’으로 오시어 그 백성을 구원하여 ‘하나님 나라’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.

이 복음서에는 “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,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”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.

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믿음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며, 동시에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.

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.

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며 “너는 나를 따르라”라고 말씀하셨다.

이 부르심은 과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,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다.

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,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.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복음서가 아니라,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‘계시의 말씀’이다.

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,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.

믿음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.

이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,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

같은 말씀이라도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'레마'는 환경과 상황, 사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'말씀'(로고스)의 본질인 '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'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,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면 기록해 두기를 바랍니다.

다만 '레마'는 주관적 체험일 수 있으므로, '나의 레마'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별해야 하며, 그 과정을 통해 '나의 강해'로 정리될 때,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

이 강해는 서로 질문하고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강해입니다.
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,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(의견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ets@ermcus.org로 보내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)